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과 영원성

정 현 숙

수원대학교

〈요 약〉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에 관한 사상을 『고백록』의 창조와 시간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플라톤(Platon)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로부터 비롯한 고대 그리스의 객관적 시간론에서 선회한 주관적 시간론의 창시자로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검토한 후 시간의 본질에 관하여 논하였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객관적 시제를 비판한 후 인간의 정신(영혼)에서 체험되는 기억, 감지, 예상이 주관적 시간 경험의 바탕임을 파악하고, 그의 이러한 관점이 후설(Husserl)의 현상학적 시간론 등 근대 및 현대 시간 철학의 원천임을 살폈다. 그의 무(無)로 부터의 시간 창조설이 현대 과학적 우주론과 합치됨을 보였다. 특히 창조 이전에는 시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창조 이전이란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 절대 무로부터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관점의 현대성을 부각했다. 그의 시간론 중 가장 독창적인 기여로서 시간성의 초월 내지는 반대 개념으로서의 영원성을 들었다. 영원성은 하느님의 불변성, 전지(全知), 통일성을 가리키고, 시간성은 피조물과 인간의 가변성, 제한된 지식, 분열성을 가리키어 서로 대응된다.

무로부터 피조된 인간은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 세 갈래로의 분열을 통해 다시 무로 떨어지려는 실존적 위험에 처해있다. 그러므로 시간의 세계에 사는 인간은 영원의 하느님과 하나 되는 신앙을 통하여 피조물이 원래의 무(無)로 다시 타락될 경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주관적 시간관, 시간을 초월한 영원성의 개념은 그의 독창적인 사상이었으며, 여기에 하느님에 의한 시간과 피조물들의 창조를 결합하여 ‘신앙과 시간의 관계’를 수립한 것도 창조적 발상이었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과 영원성에 바탕한 신앙교육의 기반원리를 창안하였다.

핵심 주제어: 시간, 지각, 영원, 고백록, 신앙, 신앙교육.

I. 서 론

현대인들은 바쁜 생활에 쫓기며 살고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며 알고자 하는 관심조차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어서 익숙하고 자명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무엇인가 하고 자문해보면 곧 말문이 막힘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태를 가장 잘 드러낸 글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의 글이 회자되곤 한다.

하오면 '시간'이란 무엇이니이까? 누가 이것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으리이까? 누가 이것을 잘 이해하여, [그 이해한 바를] 말로 표현할 수 있으리이까? 그러하나 [사람의] 일상대화에서 '시간'보다 더 익숙한 말, 잘 알고 있는 말이 또 어디 있으리이까? 우리가 '시간'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뜻을 잘 알고 있으며, 남이 이 말을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에도 우리는 그 뜻을 잘 알고 있나이다.

하오면 '시간'이란 무엇이니이까? 아무도 내게 묻는 자가 없을 때는 아는 것 같다가도, 막상 묻는 자가 있어 그에게 설명하려 하면 나는 알 수가 없나이다.¹⁾

시간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식화시키려고 시도한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또한 그 이론들 사이에 대치와 상충의 방식도 다양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로부터 현대의 철학자, 신학자, 과학자에 이르기까지 시간 개념은 중요하고 광범위한 문제였다. 시간 개념은 객관적 과학적 시간관과 주관적 심리적 시간관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 바, 객관적 시간은 기술적 계량의 측면에서 과학의 주요 연구대상이다. 주관적 시간은 심리적인 시간체험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명저 『고백록 Confessionum』에서 시간과 하느님의 관계를 다루면서 내적 체험으로서의 시간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그의 시간론은 그 접근 방식에서나 내용에서나 그리스 고전적 시간 철학으로부터 질적인 변혁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자연적 변화의 계량으로서의 시간개념에서 벗어나 지각(perception)의 양태로서의 시간관을 최초로 제시하여 관점의 선회를 가져왔다. 그는 과거의 기억, 현재의 감지(感知), 미래의 예상이란 심리학적 범주를 통해서 시간의 경험에 대한 독창적 철학을 산출했던 것이며, 그의 이 선회는 근대와 현대의 시간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칸트(Kant)의 선형 형식으로서의 시간, 후설(Husserl)의 현상학적 시간관, 하이데거(Heidegger)의 『시간과 존재』에서 보여주는 형이상학적 시간관 등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내적 시간 사상의 발전적 전개라 볼 수 있다.

본고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관의 신앙적 측면이다. 그의 창조

1) A., Augustinus, *Confessionum*, XI, 14, 17, 김광채 옮김, 『고백록』(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2005), 354쪽.

주 하느님의 영원성과 피조물 인간의 시간성에 대한 탁월한 논의는 고금을 통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신학적 시간론의 백미라 아니할 수 없다. 객관적 시간관이나 주관적인 철학적 시간관에서 영원성은 무한히 긴 시간으로 영원과 시간은 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느님 신앙에 바탕한 사상에서는 영원성은 시간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초시간성 내지는 반(反)시간성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경험에서 감지되는 시간은 모두 무(無)로부터 창조된 피조물들의 가변성을 나타내며, 무(無)로 다시 타락할 수 있는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인간은 무로 사라질 수 있는 시간성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느님의 신앙을 통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항상 현존하는 하느님의 영원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고백록』에서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영원과 구원의 신앙을 시간에 관한 성찰로부터 이끌어 낸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 사상이야말로 과학적 시간 철학이나 심리적 시간 철학을 넘어서는 그의 독창적 위업이라 아니 할 수 없다.

II.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

시간에 대한 서구 사상사의 관점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대로 자연 현상의 일부로 파악하는 객관적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 경험을 하는 주체로서의 시간 의식에 관련된 주관적 시간이다. 먼저 객관적 시간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 자연철학에서 뉴턴(Newton)의 근대과학으로 그리고, 아인슈타인(Einstein)의 상대성 이론으로 그 이해와 과학적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며, 현대 물리학에서도 우주론, 소립자론과 연계되어 가장 핵심적인 미해결의 연구 주제로 남아있다. 본고에서는 시간론의 장을 연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을 주제로 다룰 것이지만, 시간의 이 두 측면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우리의 시간 이해를 전진케 하는 필수 요소인 만큼 객관적 시간에 대한 아주 간략한 소묘를 먼저 하고자 한다.

플라톤이 그의 대화편 “티마이오스 (Timaios)”에서 시간을

그러나 그는 움직이는 어떤 영원의 모상(eikōn)을 만들 생각을 하고서, 천구에 질서를 잡아줌과 동시에, 단일성 속에 머물러 있는 영원의 모상, 수(數)에 따라 진행되는 영구적인 모상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chronos)이라 이름지은 것입니다.²⁾

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시간의 수학적 이해가 객관적 또는 과학적 시간의 전통이 되었다.

객관적 시간의 본질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처음으로 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였다. 그의 『자연학』제 4권 10-14장에서 다루고 있으며 시간과 운동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근

2) Platon, *Timaios*, 37d, 박종현 · 김영균 공동 역주,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서울: 서광사, 2000), 102쪽.

대 과학으로 그대로 이어진다.³⁾ ‘시간이 그 자체 운동은 아니지만’, ‘시간은 운동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이란 우리가 운동체의 운동에서 발견하게 되는 어떤 것이다’와 같이 시간의 객관적 본성을 운동에서 찾으려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시간은 수(數)라고 주장하는 바, 즉 헤아려진 것으로서의 수를 말한다.⁴⁾ 이런 시간은 수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헤아리며 측정하는 척도적 기능을 갖는다.

시간이 어떤 특정 운동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운동과 사물이 시간 안에 있으므로 시간은 모든 물체들보다도 더 객관적으로 그 자체로 존재하는 듯이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 시간은 도처에 존재하며, 보편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다.⁵⁾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인 시간관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계량화되는 계기는 갈릴레오(Galileo)가 운동과 시간을 수학적으로 구체적인 기술을 함에서 나타냈다. 자유낙하 운동에 헤아리는 척도의 시간을 적용하여 운동거리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함을 수식으로 보인 것은 수학물리학이 열리는 시발점이 되었다.

뉴턴은 변화를 다루는 수학을 운동과 시간에 적용하여 근대 과학의 창시자가 되었다. 그의 유명한 운동의 세 법칙을 세울 때 그는 과학적 시간의 본성을 먼저 기술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일상적 시간 경험을 정제하여 다음과 같은 시간관을 세웠다.

- 1) 시간은 실재로서 존재하는 절대적 시간이다.
- 2) 시간은 일직선적으로 미래에서 과거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
- 3) 시간은 전 우주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흐르는 보편적 존재이다.

뉴턴의 절대시간관은 고대에서 근대과학에 이르기까지 일상적 시간 경험을 잘 대변하고 있으므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적 시간관이 나왔을 때 시간과 공간에 관한 큰 혁명으로 받아들여졌다. 상대론적 시공간 개념을 요약하면 첫째 시간은 관찰자의 운동에 따라 흐름의 속도가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다. 둘째 시간의 일 방향적 흐름은 인정하나, ‘과거는 흘러갔으므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므로 없고 오직 현재만이 있다’와 같은 진술은 단순 명료하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시간은 물질의 분포에 따라 흐름이 다르다. 넷째 시간과 공간은 분리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체이다.⁶⁾

상대성이론의 출현은 객관적 시간의 혁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파장은 이른 바 주관적 시간의 사유에도 그 추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창조와 시간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무에서 창조’라는 사상은 상대성이론 이전의 근대 과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시간과 공간 및 물질이 분리될 수 없는 상대론적 우주론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된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주관적 시간과 상대론의 객

3) Aristoteles, *Physika*, 10. 217 b 31, 신상희, 『아리스토텔레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이해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 『철학』 vol.59, no.1(한국철학회, 1999), 192쪽.

4) Aristoteles, 10. 219 b 3, 앞의 글, 197쪽.

5) Aristoteles, 14. 223 a 17, 앞의 글, 198쪽.

6) 소광섭, 『물리학과 대승기신론』(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21-25쪽.

관적 시간의 관계는 본고의 주제가 아니므로 후일의 연구과제로 미루고, 본고에서는 주관적 시간관에 한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시간을 운동 또는 변화에 관련된 수(數)적 척도라는 객관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의 지각(perception)의 양태로서의 시간관을 제시하여 인식적인 관점에서 시간관을 제시하는 전환을 이룬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였다. 근현대의 중요한 주관적 시간론의 흐름은 아우구스티누스를 그 원천으로 하지만, 심리적 시간 체험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하는데 반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는 신앙적 관점에서 하느님의 창조와 하느님의 영원성을 중심으로 논한다는 점이 크게 다르며 본고에서도 신앙교육적 관점에서 그의 시간관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관을 고찰하기 전에 칸트의 선험적 시간관이 갖는 특이점을 아주 간략히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객관적 시간관과 주관적 시간관이라는 두 개의 동떨어진 시간관을 아우구스티누스가 분리하여 주관적 시간관만을 고찰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객관적 시간의 고찰에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며, 현재도 없다”는 역설적 상황을 마주하여 그의 해결책을 주관적 심리적 시간에서 찾고 있다. 한편 칸트는 뉴턴 역학의 절대 시간의 인식론적 근거를 정초하기 위하여 시간이 객관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주관에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감성의 순수한 선험적 형식이 시간이라고 보았으며, 즉 모든 현상이 시간이라는 주관적 형식에 의해 인식경험으로 들어온다고 하였다. 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관적 시간과 유사한 면이 있다. 즉 시간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조건이란 것이다. 차이점은 칸트는 이런 주관적 시간으로 과학적 세계관을 정초하려고 한 점이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종교적 체험에서 하느님을 신앙하는 기점으로 잡은 점이다.

Ⅲ. 창조와 시간

1.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

세계는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에 앞선 위대한 그리스 문화권의 두 사상가인 플라톤(Platon)과 플로티누스(plotinus)의 설과는 달리 성경의 하느님에 바탕 한 창조설을 주장한다. 플라톤의 설은 세계기원에 관한 이원론(二元論)적 설로서 티마이오스(Timaios)에 나와 있다. 태초에 데미우르고스(Demiourgos)란 신이 본래 있었던 어떤 물질적 재료들에 질서를 부여하였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이것들 모두가 비례(비율: logos)도 없고 척도(metron)도 없는 상태로 (alogōs kai ametrōs) 있었습니다. ...신이 최초로 도형(eidos)들과 수(arithmos)들로써 형태를 만들어내기 시

작하였습니다. 신은 이것들을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던 것들에서 가능한 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하게 구성해 냈다는 것, 이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되닐 말하도록 하죠.⁷⁾

플라톤의 학설이 이원론임은 세계창조의 이데아를 품고 있는 신과 세계 형성의 재료인 물질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데미우르고스는 만물의 창조주가 아니며, 물질적 재료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다. 형성된 세계는 하느님의 절대선과 완전성을 구현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한 한 아름답고 훌륭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상대적인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세계 창조론은 성경의 하느님 관으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의 창조론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 이전에 경도되었던 신플라톤주의의 플로티누스(Plotinus)의 일원론(一元論)에서는 일자(一者, The One)가 모든 존재의 초월적인 근원이며 또한 모든 것이 그에 귀환하는 목적이다.⁸⁾ 그의 일자는 절대 초월자로서 이 세계에 대한 일절의 행위가 없으며 따라서 세계를 창조하는 일도 없다. 세계의 기원은 일자에 의한 창조가 아니라 일자로부터의 유출(emanation)에 의한 결과이며, 비유하면 태양에서 빛이 나오듯이 존재가 일자인 신으로부터 유출된다는 것이다. 빛의 유출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불변부동인 듯이 세계의 만유가 일자로부터 유출되어도 일자가 변화나 행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불활적 신관은 명백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창조의 하느님과는 다르며,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에 바탕 하여 세계창조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분명하게 플라톤적 이원론과 플로티누스적 일원론을 부정하고 무(無)로부터 창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피조물이 당신에 의해 무(無)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오나 당신에게서 유출된 것은 아니고, 당신의 피조물이 아닌 그 무엇에서 나온 것 역시 아니며, 혹은 그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그 무엇에서 나온 것 역시 아니니이다. ...

본디 천지의 질료와 천지의 형상은 서로 다르나이다. 하오나 당신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창조하셨으니, 질료는 절대무(絶對無)에서 창조하셨고, 세계의 형상은 무형적 질료에서 창조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질료에 형상이 부여되는 일이 아무 시간 간격 없이 일어났나이다.⁹⁾

그의 ‘무로부터의 창조’ 설은 형이상학적 논의가 아니라 신앙으로서 적극적인 신학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로 존재론적 관점에서 하느님만이 실재이시고,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완전히 의존되어 있는 존재이다. 피조물은 무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무(nihil)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부터 근본적인 구원은 창조주 하느님께 의존함

7) Platon, 53a, 53b, 앞의 책, 148-149쪽.

8) 선한용, 『성 어거스틴에 있어서의 시간에 대한 문제연구』, 『신학과 세계』 vol.8(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세계, 1982), 298쪽.

9) *Confessionum*, XIII, 33(48), p.468.

으로써 가능하다. 이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내가 또한 당신 아래에 있는 그 밖의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그것들이 온전한 존재도 온전한 비존재도 아님을 나는 깨달았나이다.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당신으로부터 왔음이며,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당신과 같은 [수준의] 존재가 아님이니이다. 불변적으로 존재하는 것, 오직 그것만이 참된 존재니이다.¹⁰⁾

둘째로 하느님은 지고의 선(Bonus 善)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선 일원론이다. 이는 마니교의 선악 이원론에서 회심하여 교회로 돌아온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앙적 세계관의 정수로서 “존재하는 것은 다 선하다”란 유명한 명제로 대변된다. “만물이 개체로서도 선하고 전체로서는 더더욱 선하니, 이는 우리 하느님이 모든 것을 다 함께 지극히 선하게 창조하셨음이니이다.”¹¹⁾ 악은 선의 결핍으로 무로부터 창조된 피조물들이 갖게 되는 태생적 경향 즉 무로 돌아가려는 경향에서 생긴다. 따라서 하느님께 신앙을 바치고 하느님과 하나되려 함은 존재론적으로 무에 떨어지지 않고 실체인 존재로 남으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오직 무에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권능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셋째로 피조물들의 가변성(mutability)은 무로부터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피조물은 무에 참여하고 있어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변적이며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이 가변성이 바로 시간의 존재론적 근거가 된다. 하느님은 완전, 불변이므로 시간을 초월한 영원의 실체이나 피조물은 가변적이며 따라서 시간 안에서 존재하며 무로 떨어질 위험에 있게 된다.

끝으로 무로부터 창조와 시간을 고찰하기 전에 과학적 우주 창조와의 관계를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관점은 고대의 자연학이나 근대의 뉴턴 과학에서는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특이한 종교적 신념에 불과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론적 우주론이 나오면서 현대물리학은 우주의 기원을 대폭발 이론(Big Bang theory)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학설에 의하면 지금부터 약 150억 년 전에 무로부터 공간과 물질과 시간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으며, 우주는 계속 팽창 중이라고 한다.¹²⁾ 아우구스티누스의 세계창조설이 얼마나 탁월한 생각인가를 자연과학이 입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시간의 창조

마니교도들은 이원론을 믿고 하느님의 세계창조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하느님이 어느

10) Ibid., VII, 12(17), p.192.

11) Ibid., VII, 12(18), p.193.

12) 소광섭, 앞의 책, 48-54쪽.

시점에서 세계를 창조했다면 그 이전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하고 물었다. 이는 과학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조차 흔히 들을 수 있는 질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대해 명쾌하게 답하고 있다

하오면 이제 내가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는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리이다.¹³⁾

당신이 진정 모든 시간의 근원이시오, 창조자이신데, 당신이 만드시지도 않은 그 수많은 세월이 어찌 흘러갈 수 있었겠나이까? 당신이 창조하시지 않은 시간이 어찌 존재할 수 있었겠나이까? 하얏고 당초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간이 어찌 흘러갈 수 있었겠나이까?¹⁴⁾

‘창조 이전’에는 시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창조 이전’이란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설명이다. 절대 무(無)로부터 세계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물론 허공과 시간까지도 없었으며 따라서 창조이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 하겠다.

비슷한 질문의 형태를 예로 들어보면 왜 하느님은 좀 더 일찍 창조하지 않으셨나? 만약 하느님이 한가로이 계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면, 하느님은 어찌하여 그와 같은 상태에 계속 머무르시지 않았느냐? 왜 갑자기 그때에 무엇을 만들려고 생각하셨을까? 하느님은 세계를 시간 밖에서 창조하셨는가 아니면 시간 안에서 창조하셨는가? 등이다. 이런 종류의 질문들은 한결같이 시간과 공간이 없는 절대 무를 이해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대폭발의 태초 이전의 시간을 묻는 것은 무의미한 질문이라고 보며, 이런 관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 창조관은 탁월하다고 하겠다.

IV. 시간의 본질 : 주관적 시간

아우구스티누스의 독창적 시간 이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객관적 시간이해와 대조되며 주관적 시간 이해의 효시를 이루고 있다. 그의 시간이해는 심리학적 성격을 가지며 ‘상대주의적’이란 평가까지 받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논의의 초점을 세계영혼(the world soul)에서 인간의 영혼으로 돌림으로써, 시간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 경험을 논의의 장(場)으로 수렴해서 들여온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인 심리학적 탐구가 된다.¹⁵⁾

아우구스티누스가 객관적 시간 이해에서 주관적, 심리적 시간으로 관점을 선회하는 것

13) *Confessionum*, XI, 12(14), p.352.

14) *Ibid.*, XI, 13(15), p.353.

15) 김영민, 『현상학과 시간』(서울: 도서출판 까치, 1994), 87쪽.

은 객관적 시간의 부재라는 역설적 분석에 기인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버린 것이므로 과거는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는 있는 듯 보이지만,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과거와 미래로 나누어지고 현재는 시간의 연장(延長)을 지니지 못하므로 길이가 없는 것이 어떻게 '긴 시간, 짧은 시간'처럼 있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객관적 시간은 사실상 그 길이를 측정할 수조차 없는 것으로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느 것도 없다는 역설이 생긴다.

이러한 객관적 시간의 분석에 이어 아우구스티누스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제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현재에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은 바깥 대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영혼)에 있다고 본다.

이는 이 세 가지 시제가 영혼 속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니이다. 영혼 이외의 곳에서 는 그 존재함을 볼 수 없사오니, 과거 일의 현재는 기억함이요, 현재 일의 현재는 바라봄이요, 미래 일의 현재는 예상함이니이다. 이같이 말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세 가지 시제를 나는 볼 수 있고, 세가지 시제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나이다.¹⁶⁾

영혼은 예상(豫想), 감지(感知), 기억(記憶)이라는 기능을 통하여, 예상한 것을 감지하고 감지한 것을 기억해 두는 것이다. 사실 미래의 것이 아직 '존재'하지 않음을 누가 부정하겠는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미래사(未來事)에 대한 예상을 이미 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누가 부정하겠는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과거사에 대한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시간은 순간적으로 존재하다 지나가는 것인 까닭에 길이가 없다는 사실을 누가 부정하겠는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감지하는 기능을 계속 수행하는 까닭에, 미래의 존재는 그것을 통과하여 과거의 존재로 변천해 가는 것이다. 그런즉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시간이 긴 것이 아니니, 미래의 시간이 길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상이 길게 연장됨을 의미할 따름이다. 또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시간이 긴 것이 아니니, 과거의 시간이 길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 길게 연장됨을 의미할 따름이다.¹⁷⁾

그러므로, 과거-현재-미래는 기억-바라봄(감지)-예상으로 영혼 속에 있다. 이러한 그의 시간관의 대선회는 현대적인 후설의 현상학적 시간관의 시원으로 볼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식과 경험의 주체로서의 마음에 관심을 돌려서 그 마음의 지각양태에 주목한다. 물론 그의 분석은 후설의 현상학적 규명에 비해서 시간적-지각적 통합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세세한 기술에서 적지 않은 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음이 틀림없다.¹⁸⁾

16) *Confessionum*, XI, 20(26), pp.361-362.

17) *Ibid.*, XI, 28(37), pp.373-374.

18) 송병구,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에 대한 존재론적 접근』, 『종교학연구』 vol.22(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2003), 172쪽.

요컨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각의 흐름에서 정신활동은 기억, 감지, 예상으로 뻗어나 가며, 시간 체험은 마음의 분열이다. 이러한 흠어짐은 창조 전의 무(無)로 떨어짐을 향한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분열을 체험하면서 그 반대로 마음을 하나로 뭉치려는 노력을 보인다. “흐트러진 삶에서 벗어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당신의 아름다움을 앙망할 것이니, 당신의 아름다움은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이 영원하나이다.”¹⁹⁾ 분열의 시간 체험에서 통일의 영원으로 나가려는 이 마음의 집중이 곧 하느님을 향한 의지이며 신앙의 지향이다. 그래서 시간은 인간적 존재의 본질이며, 마음의 문제이고 신앙과 구원에 걸쳐 있다. 이에 시간 본질의 다른 측면인 영원성을 고찰할 단계에 이르렀다.

V. 영원과 하느님 신앙

1. 영원성과 시간의 초월

객관적 시간의 관점에서는 무한히 긴 시간을 영원이라 본다. 무한히 긴 과거나 무한히 먼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다. 이는 시간성 안에서 영원을 이해하는 것이며, 시간과 영원은 질적인 차이가 없다. 플로티누스의 세계관에 의하면 우주는 무한하고 영원하다. 우주는 시작도 없었고 끝나지도 않는다.²⁰⁾

플라톤은 시간을 영원의 모상(模像)이라고 보았는데,²¹⁾ 이도 또한 시간과 영원의 근본적 차이를 보지 않는 관점이다. 현대 물리학적 우주관에서도 영원한 팽창을 하나의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바 시간성을 초월한 영원성이란 개념이 따로 없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 철학 및 객관주의에서 보는 시간의 연장선상에서 도입되는 영원의 개념을 뛰어넘는 독창적인 영원성을 제시하였다. 그는 시간보다 논리적으로 선행하고 시간성을 초월한 ‘하느님의 영원성’을 도입했다.

하옉고 당신은 시간을 시간적으로 앞서신 것이 아니니이다. 만약 시간적으로 앞서신다면, 당신이 모든 시간을 앞서신다 말할 수 없나이다. 하옉데 당신이 과거의 모든 시간을 앞서신 것은, 언제나 현존하는 영원성의 탁월함으로 앞서신 것이요, 미래의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것은, 그것이 앞으로 올 것이면서도, 일단 온 다음에는 지나가 버릴 것인 까닭이니이다. 하오나 “주는 여상 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시 102:27). 당신의 연대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나, 우리의 연대는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며, 결국 그 끝이 있나이다. 당신의 연대는 항상 현존하므로 모든 연대가 동

19) *Confessionum*, XI, 29(39), p.375.

20) 선한용, 『성 어거스틴에 있어서의 시간에 대한 문제연구』, 『신학과 세계』 vol.9(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 세계, 1983), 231쪽.

21) Platon, 37d., 앞의 책, p.102.

시에 함께 있으니, 가는 것이 오는 것에 밀려나지 않으며 지나가 버림이 없나이다. 하오나 우리의 연대는 다 지나가 버린 다음에 끝이 있나이다.²²⁾

시간을 시간적으로 앞서신 것이 아니란 것은 하느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하느님이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원성’이 시간이 무한히 과거로 내려감을 의미하지 않음도 분명하다. ‘과거의 모든 시간을 앞서신 것은 언제나 현존하는 영원성의 탁월함으로 앞서신 것’에서와 같이 영원성은 초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간성의 안에서 살고 있는 피조물에게는 언제나 항상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원성은 미래에 올 모든 시간도 초월해 있음으로, 항상 현존한다는 즉, 시간적으로는 모든 연대(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함께 있다는 불가사의한 모습으로 비친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연대는 전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비친다. 이는 영원성이 시간성을 초월함에서 가능한 것으로 영원성을 시간이 있는 세계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기적으로 보인다. 하느님에겐 영원성으로 인하여 모든 시간과 모든 피조물이 항상 현전하며, 동시적으로 인지된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전지하며, 인간의 지식은 시간성 때문에 불완전하고 제한된 것이다. 하느님은 존재와 삶이 하나이며 영원(시간초월)하며 어느 한 순간에도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삶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태초의 창조와 미래의 일까지도 하느님에게는 현재적이다.

항상 불변하는 저 영원의 광휘(光輝)를 찰나라도 붙들어, 변전무상(變轉無常)한 시간과 비교할 자 누구니이까? 영원과 시간은 비교할 수 없나이다. 긴 시간이 긴 시간이 되는 것은, 동시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의 흐름이 오래 계속되는 까닭이나, 영원에 있어서는 아무 것도 지나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현재적으로 존재하나이다. 반면 시간은 온전히 현재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니, 과거는 항상 미래에 의하여 밀려나고, 미래는 항상 과거를 뒤따르나이다. 하오나 과거와 미래는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에 의해 창조되어 흐르는 것이 아니니이까? 누가 인간의 심령을 붙들어 조용히 서 있게 하오리까? 그리하여 미래도 과거도 없이 언제나 영원하신 분이 미래와 과거의 시간을 다스리시는지 보게 할 수 있으리이까?²³⁾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과 영원에 대한 개념은 하느님에 대한 그의 신앙에 기원하는 것이며, 따라서 시간, 영원, 하느님 신앙은 떼어놓을 수 없는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2. 시간, 영원, 하느님 신앙.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영원은 단순히 객관적 시간의 무한 연장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창조하고 시간 너머 더 ‘먼저’이신 하느님의 영원이며 따라서 그의 신앙관과 핵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주여 영원이 당신의 것인데,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당신이 어찌 시

22) *Confessionum*, XI, 13(16), p.353.

23) *Ibid.*, XI, 11(13), p.351.

간적으로만 보실 수 있으리까?”²⁴⁾ 하여 영원은 하나님에 속하며, 그러하므로 시간 속에 일어나는 일을 모두 보심[전지(全知)]을 ‘영원’이란 말에 담고 있다.

하느님은 완전하고,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존재이시며 생멸 없는 불변의 존재이다. 하느님은 존재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행위에 있어서도 시간에 앞서며 시간의 흐름에 관계 없이 초시간적하시다.

하느님은 시간조차 없는 절대 무(無)에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한편 인간과 그의 영혼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시간과 함께 무에서 태초에 창조되었다. 그리하여 피조물은 완전한 존재가 못하고 무로 떨어질 수 있는 가변적(可變的)존재이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멸한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전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실 분”이라고 기술하는 것은 피조물의 시간적 관점을 초시간적인 영원한 하느님에게 적용해보려는 시도이다. 영원과 시간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어서 시간적인 묘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주관적 시간이란 독창적 시간관을 처음으로 주창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객관적 시간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투영된 예상, 감지, 기억이라는 세 가지 심리적 의식의 지향 구조와 실존적 시간 체험의 중요성을 알아낸 것이다. 이러한 시간 체험은 마음의 분열이며, 이는 피조물이 갖는 가변성 내지는 무상성(無常性)이다. 피조물은 원래 시간과 함께 무(無)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분열하고 다시 무로 돌아갈 위험성에 처해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성의 분열과 무에로의 타락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마음을 몽치어 하나로 집중하여 영원 즉 하느님과 하나가 되도록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호트러진 삶에서 벗어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벧 3:14) 좇아 가려 하나이다. 저 높은 곳에서 나는 찬미 소리를 들을 것이요 당신의 ‘아름다움을 앙망’(시 27:4) 할 것이니, 당신의 아름다움은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이 영원하나이다.²⁵⁾

3. 시간론과 신앙교육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의 플라톤을 비롯한 그리스의 교육철학은 인간의 이성적 사유를 중시하는 주지설(主知說)이 지배적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성적 사유보다 의지와 신앙을 더 기본으로 보는 주의설(主意說)을 주장함으로써 그의 독창적 교육철학을 열었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알게 된다’는 그의 고유한 인식론에 바탕하여 기독교 신학의 교부이자 신앙교육의 창시자로 추앙받게 되었다.

24) Ibid., XI, 1(1), p.339.

25) Ibid., XI, 29(39), p.375.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앙교육에 관련된 주요 저술로는 『기독교 교육론』(De Doctrina Christiana), 『초신자 교육서』(De Catechizandis Rudibus), 『교사론』(De Magistro) 등이 손꼽히고 있으며 이들 저술에서 주의설(主意說)에 바탕한 신앙교육론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시적 신앙교육 저술이 아니고 일종의 자서전류인 『고백록(Confessionum)』이 신학과 신앙교육의 원천으로 오히려 더 널리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하느님 신앙교육의 원천으로써 『고백록』 중 시간론 부분에 집중 조명을 시도하였다.

주지설과 주의설의 교육철학적 분별과 일치하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되는 객관적 또는 과학적 시간론에 대조되는 주관적 또는 심리적 시간론을 개진하였다는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독창성과 일관성을 볼 수 있다. 시간이 객관적 실체가 아닌 주관적 심리체험이란 관점은 시간의 초월인 영원성에서 하느님과 연결된다. 플라톤 사상과 같은 객관적 시간론에서는 영원은 시간의 무한 연장이란 개념에 불과하므로 하느님이나 신앙과의 연결이 없는 현상에 불과한 점과 대조적이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주관적 시간론은 그의 하느님관이란 신학적 관점에서 전모가 파악되는 것이며 영원성을 통해서 하느님 신앙과 연계되는 것이다.

인간은 시간의 가변성과 분열과 무(無)에로 타락하는 위협에 처해 있다. 이러한 인간이 하느님의 영원성으로 향하고 하나 되도록 나감으로써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신앙교육의 근본원리로 시간-영원의 개념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간의 의지적 노력은 시간 체험으로 갈라지는 마음을 하느님께로 모으는 일이며, 완전히 모아진다면 하느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한 현재로서 머물게 된다. 이러한 집중은 어떻게 가능한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절제와 하느님의 은사를 강조한다.

하온데 나의 모든 소망은 당신의 심히 큰 자비에만 있나이다. 당신이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명 하소서 당신은 우리에게 절제를 명하시나이다. 누군가 이르기를, “하느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절제할 수 없음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 은사를 누가 주셨는지 깨닫는 것 또한 지혜니라”(지혜서 8:21)하였나이다. 이는 우리가 절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로 취합됨이니, 우리는 이 하나에서 많은 것으로 흘러내려 나누어졌었나이다.²⁶⁾

시간론에 바탕한 신앙교육의 현대적 의의를 고찰함에 있어서 먼저 현대인은 객관적 시간의 틀에 얽매어 살고 있으며,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각박한 시간 속에 살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의 근저에는 현대 기술문명의 정밀성과 신속성이 있으며,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플라톤 이래 주지주의(主知主義)적 과학과 시간 철학의 일방적 독주에 기인한다. 현대인의 삶에서 정신, 의지, 신앙의 위상은 기계, 지식, 유허론에 눌러 계속 위축되고, 물질적 풍요 속에 심리적 불안과 불행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인

26) Ibid., X, 29(40), p.310.

이 시간에 쫓기어 사는 것은 객관적 시간론의 세계에 갇히어 살고 있다는 증좌로 볼 수 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주관적 시간론의 인식론적 위치를 살펴보고, 이를 하느님 신앙과 연계시킴으로써 진실로 시간으로부터 해방되는 영원성으로 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신앙교육의 새로운 심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과학기술 문명의 근저인 시간에 하느님의 영원성에 바탕한 신앙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현대문명의 병폐에 오염되어 타락하고 고통받는 현대인의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신앙교육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

VI. 결 론

시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과학적 이해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근대 과학의 뉴턴에 이르기까지 상식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상대성 이론을 도입한 아인슈타인에 이르러 혁명적 발전을 이루었다. 이 발전을 바탕으로 우주론의 과학적 논의가 가능해졌으며, 대폭발 이론(Big Bang Theory)에 의하면 약 150억 년 전에 우주는 무(無)에서 발생했으며, 시간과 공간도 이 태초의 순간에 생겨났다. 현대물리학적인 이 관점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고백록에서 제시한 시간관과 일치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無)로부터의 창조’와 ‘창조 이전에는 시간조차 없었다’는 언명은 플라톤이나 플로티누스 등 고대 그리스 로마의 철학적 사유에는 없었으며,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으로 내세운 독창적 세계관이다. 이 세계관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온 20세기 까지는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고, 오직 하느님의 세계창조라는 종교적 신념으로만 치부되었다. 그러나 현대 과학적으로는 오히려 당연시될 만큼 정당한 세계관이란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사유의 탁월성을 볼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 시간철학의 진정한 위대성은 그 이전에는 아무도 논한 바 없던 인간 내적 체험으로서의 주관적 시간관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시간의 본질에 관한 가장 독창적인 기여로서 근대 이후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는 객관적 존재로서 있을 수가 없고, 오직 우리의 마음(영혼)속에 예상, 감지, 기억의 세 양상으로 존재함을 규명한 것이다. 이러한 시간의 체험은 마음의 3방향으로의 분열이며, 이는 무(無)에서 피조물로 나타난 인간의 가변적(可變的) 실존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또 다른 위대한 사상적 도약인 시간의 초월로서의 영원성과 하느님 신앙과 구원관이 나오게 된다.

신앙적 측면에서 본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관은 시간의 초월 내지는 반대 개념으로서의 영원성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객관적 시간관에서는 영원은 단순히 무한히 뻗은 긴 시간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관에서 영원은 시간과 거의 반대 개념이

다. 영원은 하느님, 불변성에 대응하고 시간은 피조물, 가변성에 속한다. 하느님은 영원하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에 초월해 있으므로 언제나 현존하며, 하느님의 연대는 전혀 흐르지 않는다. 태초의 창조로부터 먼 미래의 일까지 모두 아심(전지)은 하느님의 영원성 때문이며, 우리들의 지혜가 제한적인 것은 시간과 함께 창조되고 시간 속에 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피조물인 인간은 무(無)에서 창조되어 무로 떨어지는 가변적인 존재로 그의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기억, 감지, 예지)로 분열되는 무력한 존재이다. 그의 구원은 시간과 세계의 창조주인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무로 떨어지는 분열의 마음을 하느님께 모아 영원과 하나 되도록 신앙을 통해 구원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관은 객관적인 측면에서나 주관적인 측면에서 독창적인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와 연계하여 인간의 실존적 상황의 기초로서 시간을 파악하고 신앙과 구원을 영원성에 찾는다는 점에서 가장 탁월한 시간-신앙 철학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은 객관적 시간론에 대조되는 주관적 시간론을 최초로 도입하여 시간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신학적 관점에서는 ‘무(無)로부터 창조’와 ‘창조 이전에는 시간조차 없었다’는 시간론을 부각시켰다. 그의 『고백록』에서 논의한 이 시간론은 신앙교육의 새로운 기반을 제공한다. 인간은 시간과 마찬가지로 무(無)에서 창조된 피조물이므로 인간의 가변적(可變的)이고 무에로 타락하려는 실존 상황으로부터 구원 가능성은 하느님의 영원성에 있으며, 따라서 인간은 현실의 무상변천 하는 실상에서 눈을 돌려 영원불변의 하느님을 향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에 바탕 한 신앙교육의 기본원리는 분초를 다투며 시간에 구속되어 사는 현대인에게 적절한 구원의 원리를 부여하는 것이며 따라서 하느님 신앙을 근원적으로 이해시키는 교육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공동번역 성서』. 대한성서공회발행. 1977.
- 김영민. 『현상학과 시간』. 서울: 도서출판 까치. 1994.
- 김재은. 「성 어거스틴의 교육론」. 『신학과 세계』 33. 감리교신학대학교. 1996.
- 김성진. 「현대의 윤리적 상황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론」. 『중세철학』 제8호. 한국중세철학연구소 편. 왜관: 분도출판사. 2002.
- 김태규. 「아우구스티누스에 있어서 시간과 창조」. 『동서철학연구』 제44권. 한국동서철학회. 2007.
- 소광섭. 『물리학과 대승기신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선한용. 「성 어거스틴에 있어서의 시간과 영원」. 『기독교사상』 vol.1. No.2. 대한기독교서회. 1957.
- _____. 「성 어거스틴에 있어서의 시간에 대한 문제연구」. 『신학과 세계』 vol.8.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 세계. 1982.
- _____. 「성 어거스틴에 있어서의 시간에 대한 문제연구」. 『신학과 세계』 vol.9.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 세계. 1983.
- 송병구.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에 대한 존재론적 접근」. 『종교학연구』 vol.22. 서울대학교 종교학 연구회. 2003.
- 신상희. 「아리스토텔레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이해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 『철학』 vol. 59. no.1. 한국철학회. 1999.
- 양명수. 『어거스틴의 인식론』. 서울: 한들출판사. 1999.
- 이석우. 「자유와 역사」. 『건대사학』 10. 건국대학교 사학회. 2003.
- _____. 『아우구스티누스』. 서울: 민음사. 1995.
- _____. 「어거스틴의 교육사상」. 『서양고대사연구』 3. 한국서양 고대역사문화 학회. 1995.
- 이종환. 「창조와 시간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 『기독교 철학』 제3권. 1호. 한국 기독교 철학회. 2007.
- 장성민.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적 시간론」. 『신앙과 학문』 제12권. 3호. 기독교 학문 연구회. 2007.
- 정기철. 「아우구스티누스의 창조와 시간론」. 『한국 기독교 신학 논총』 vol.17. 한국기독교학회. 2000.
- _____.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 문제에 대한 해석학적 고찰」. 『해석학연구』 vol.10. 한국해석학회. 2002.
- 정현숙.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육사상과 신앙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24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 _____.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지론’과 ‘고백록’을 통해서본 신앙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26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2
- _____.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육사상과 조명설의 종교교육적 의의」. 『종교교육학연구』 제30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6.
- 주영흠. 『아우구스티누스 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2007.
- Augustinus, A. *Confessionum*. 최민순 옮김. 『고백록』.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93.

- _____. *Confessionum*. 김광채 옮김. 『고백록』.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 _____. *De Civitate Dei*. 조호연 · 김종흡 옮김. 『신국론』. 서울: 현대지성사. 2002.
- _____. *De Doctrina Christiana*. 김종흡 옮김. 『기독교교육론』.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 _____. *De Doctrina Christiana*. 성염 역주. 『그리스도교 교양』. 왜관: 분도출판사. 1989.
- _____. *De libero Arbitrio*. 성염 역주. 『자유지의론』. 왜관: 분도출판사. 1998.
- _____. *De Magistro*. 김영국 역. 『교사론』 어거스틴 저작집 제2권. 서울: 소망사. 1983.
- _____. *De Trinitate*. 김종흡 옮김. 『삼위일체론』.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7.
- _____. *De Vera Religione*. 김영국 역. 『참 종교론』 어거스틴 저작집 제2권. 서울: 소망사. 1983.
- Babcock, W. S. *The Ethics of St. Augustine*. 문시영 옮김.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학』. 서울: 서광사. 1998.
- Howie, G.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in St. Augustine*.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969.
- _____. *St. Augustine : On Education*. South Bend, Indiana: Gateway Editions, Ltd. 1969.
- Garry, Wills. *Saint Augustine*. 안인희 옮김. 『성 아우구스티누스』. 파주: 도서출판 푸른숲. 2005.
- Nash, Ronald, H. *The Light of the Mind: St. Augustine's Theory of Knowledge*.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69.
- Platon. *Timaios*. 박종현 · 김영균 공동 역주.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서울: 서광사. 2000.

원고접수: 2010년 1월 5일 1차심사: 1월 24일 게재승인일: 2월 5일

연구자 소개: 정현숙

① 전공: 교육학 / 소속: 수원대학교 교양교직과 교수

② 관심영역: 영성교육, 종교와 심리, 성인들의 영성.

③ 주요논저: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에서 ‘종교’원리의 원천』,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과 상담』,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지의론’과 ‘고백록’을 통해서본 신앙교육』,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육사상과 조명설의 종교교육학적 의의』

④ E-mail: hschung@suwon.ac.kr

Abstract

Augustine's Thoughts on Time and Eternity

Chung, Hyunsook

Suwon University

We studied Augustine's thought on time as presented in the chapters on creation and time in his autobiography, 「Confession」. He is the original thinker of the subjective time theory that is a great turn from the ancient Greek theory of the objective time initiated by Plato and Aristotle. He considered the nature of time, by critically examining the absence of three tenses, past, present, and future, as subjective internal experience of human mind(spirit) : remembering, perceiving, and anticipating. His view of internal time became an ever lasting source for later thinkers such as Husserl's phenomenological time theory.

His thought on creation of time from absolute nothingness is consistent even with modern cosmological science. His most original contribution to time theory is his thought on eternity as an anti-time or transcendental concept beyond time. The eternity represents God's Immutability, Omniscience, Oneness, while the time represents human and creature's mutability, limited knowledge, and division. Human in the realm of time is in danger of falling to nothing and can only be saved by faith in being one with God. Augustine's subjective psychological time and eternity as transcending time combined with God's creation was unique in the philosophy, science, and theology of time. Augustine's original thought on time, eternity, and faith in God provides a theoretical principle for the faith-education.

Key words: Time, Perception, Eternity, Confession, Faith, Faith-Education.